

젊은 세대들이 왜 ‘복고 문화’에 끌리는가

특별기고 - 복고열풍

서상훈
문화평론가



‘예전이 좋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어릴 적, 젊을 적, 잘나갈 적이 좋았었다는 그리움이다. 일반적으로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맛닥뜨리는 ‘오늘’의 현실은 점점 엄혹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대중문화가 복고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일종의 방증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일류대, 돈, 인격 상실, 이런 단어들로 팽배한 엄혹한 사회다. 수많은 대학생들은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 재학 중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가까스로 취직을 하더라도, 집 사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고된 현실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20여 년 간은 사회 순응형 모범생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희망이라는 비전은 사라지고 삭막해진 정신과 물질만능주의가 남은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나와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와 배금주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황폐해진 사회에서 한국인에게 정감과 성취감이 남아있던 예전이 ‘좋았던 시절’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만일 일반 대중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공통된 욕망을 대중문화가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 아이템은 사회 일반의 반향을 이끌어내어 주류적 열풍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다면 ‘복고열풍’이 가리키는 우리의 옛날은 어떠했는가. 정



치적 가치판단을 배제했을 때, 우리의 과거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였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로 한국사회는 수많은 성장을 경험했다. 대학생 정도의 학력이면 와달라는 기업이 줄을 서던 시대, (지금에 비해) 약간의 노력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던 시대, 그리고 그렇게 집의 가치가 매 해가 다르게 경충경충 뛰어오르던 시대, 그것이 그 옛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대중이 문화를 통해 추억하는 ‘복고’의 감성에는, 그 시절의 성공과 그 시절의 성장과 그 시절의 안락함이 진하게 배어 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도성장’ 자체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사례가 드문,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향수에 취해 대중문화 속의 복고열풍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자칫 다디단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절망감과 회의감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문화소비자로서의 대중이, 특히 청년들이, 이 ‘복고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소비하는냐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멍하니 앉아 과거의 영광에 취해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문화소비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 복고열풍 속에서 지금 대중 일반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예술가 지망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예술가는 항상 불안한 직업입니다. 예술가가 되었다면, 당신은 똥(패배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항상 다음(Next)이 있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또 도전하고 다음, 다음을 외치세요.”

‘복고 열풍’을 통해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사회 현상을 보며 나의 유토피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복고열풍 역시, ‘나’의 목표를 찾고 세워가는데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옛 ‘고도성장기’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단적으로, 오늘날의 이 엄혹한 사회 자체가 바로 그 그늘이다. 끝없는 것 같은 성공과 성장과 안락함 속에서 과거의 우리는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을 놓쳐왔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거치는 동안 승자도 패자도 마음 속에 심한 상처 한 줄쯤은 모두 갖게 된 사회,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이것을 상기하면, 오늘의 삭막한 현

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억눌린 자세로 죽도록 일만 하며 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여유를 품고 소소하게 스미는 감정과 풍경과 관계들을 돌아보며 그것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마도 오늘의 삭막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돌아켜보면 오늘날의 대중이 복고 코드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성공과 성장’이라는 결과가 그리워서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그 성공과 성장 사이에 틈틈이 새겨져 있던 ‘나’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사이의 간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불행해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중국적인 목표는 물론이거니와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중에도 ‘나’의 행복이 유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지금의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삶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모쪼록, 이 엄혹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대학생들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런 당신들이 만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이 가득한 사회이기를 바라면서.

참여마당

이정민
스페인어학(2014)



담론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도 없다

지난 6월 서울캠퍼스를 다녀왔다. 정운관에는 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총여학생회의 대자보가 학우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었다. 내친김에 고려대학교도 들렀다.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있었다. 학생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에 대해 사과하는 목소리, 학교를 향해 부당함을 외치는 목소리, 약자들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대자보에 담겨 있었다.

흔히 대학가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담론장으로서 대자보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해왔다. 만약 해당 대학의 뜨거운 감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학내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찾아보면 될 정도다.

그러나 필자가 1년 6개월 간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대자보를 본 건 단 한번 뿐이었다. 국제캠퍼스에 생협이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였는데, 이것조차 학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렇다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제캠퍼스가 ‘평화롭게’만 지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KHU’ 선본은 학생총투표를 통해 ‘한국대학생연합’을 탈퇴를 결정했다. 이 학생총투표에서 투표 문항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화되지 못하고 급방 사라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우리학교는 ‘학점평균을 B0로 맞추겠다’는 학교의 방침에도 목소리를 내는 학우는 없었다.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대자보가 없다’나 ‘대자보를 붙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웠다. 물론 요즘 ‘자기개발’만 하기도 개인에게는 벅차고 바쁜 시대다. 그동안 필자도 어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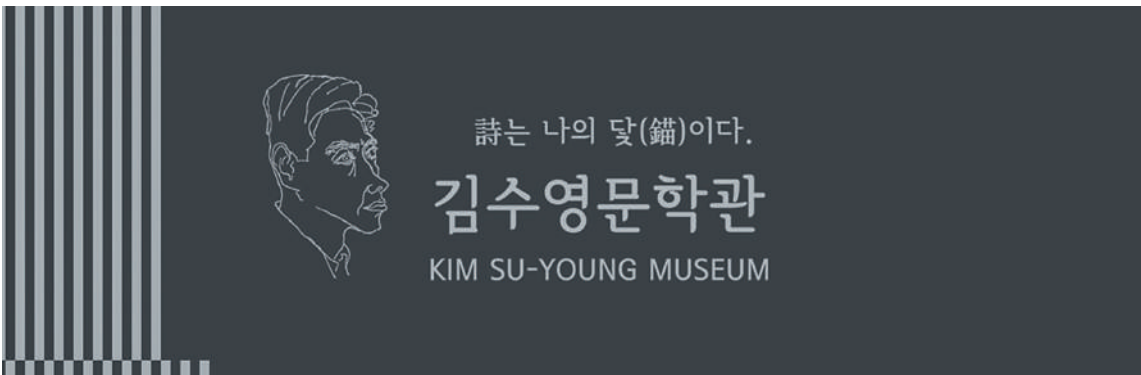
학내외에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의 말은 그래야 하는 수많은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필자는 담론형성을 통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반대로 담론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나의 의견을 가져야 할 일들에 의견을 가지며,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사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담론의 장이 형성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김수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절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에 발굴된 김수영의 미발표 원고를 보면 심지어 ‘김일성만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썼다. 4·19 혁명 직후 쓴 그 시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이다. 그가 꿈꾼 절대적 자유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분단시대의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했다. 그는 일체의 타협이나 위선을 배격하고 극단적인 정도로 정직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과 같이 사회역사적 격변



예술가의 표현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꿈과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 심한 나라에선 매우 불리하고 때로는 위험한 처신 방법이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러한 불리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의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옳고 그름을 전후좌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 이 기본적인 기능이 말살되어 있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그런 사회를 향해 “시여 침을 뱉어라”고 그는 절규했고 “시는 온몸으로 온몸을 밟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술이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수영의 이러한 태도는 충격이었

고 그 충격은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신선하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내면적 기율을 지킨 스승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다. 그런 정신적 스승을 갈구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김수영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이자 정신적 멘토이다.

세상의 위협에 주눅 들은 젊은이들에게 당당한 호연지기를 주는 글이 김수영의 시와 산문이다. 젊은이여, 궤종횡한 늙은이들을 멀리하고 김수영을 읽으라.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킷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출판 간행물 제작CI·BI

☎ 751-5939